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7.5~2017.7.1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입문(2017년 개정판)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2	달라이라마의인생론	달라이라마	마음서재
3	불교란무엇인가(초심자가 던지는 질문)	이중표	불광출판사
4	스스로를달빛삼다	원철	휴(한겨레출판)
5	꽃도꽃피우기위해애를쓴다	정목	수오서재
6	물흐르고꽃은피네(좋은때를놓치지않고사는법)	금강	불광출판사
7	원욱스님의나를바꾸는화엄경	원욱	민족사
8	아무도너를묶지않았다	월호	쌤앤파커스
9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10	과학의불교	사사키시즈카/법장	모과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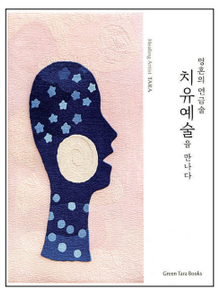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문화적 '원시예술'은?

자연과 교감한 원시적 감수성 반영 일종의 힐링과 치유 예술





영혼의 연금술 치유예술을 만나다

힐링아티스트 타라 지음
그린타라 북스 펴냄
1만 9천원

"문화가 벌거벗은 태초의 '원시'에서 영감을 받을 때가 왔다. 이 '원시'는 순수의 음향을 간직한 자연과 인간의 본성이다. 그리고 문화적 원시 예술은 자연과 교감하고 자연의 얼을 느낀 고대 원시적 감수성이 반영된 일종의 치유예술이었다"

지신, 목신, 수신, 지구 어머니 등 모두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싶어하는 힐링아티스트 타라가 자신의 힐링예술세계를 선보이는 시화 작품집을 펴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이 책의 모든 작품, 시, 통찰의 첫 실마리는 모두 영감으로부터 온 선물이고, 작업과 집필 과정마다 명상으로 내면을 조율한 후에 떠오르는 아이디어와 단상으로 완성시켜 나갔다"고 설명한다.

2년에 한 번 꼴로 개인전을 열며 오로지 작품에만 몰두한 저자는 20년이란 긴 세월을 칩거하며 순수 열정과 창조의 샘을 내면서 발견한 후,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흐르는 순수와 진실을 회복시켜주는 치유예술 작가로 돌아와 이번 책을 통해 독자와 만났다.

힐링 예술 세계 가득한 시화 작품집
드로잉, 천연염색, 바느질 등 시도 다양

저자는 글과 작품을 통해 삶의 모든 답이 자기 안에 있음을 알려주고, 내면으로 들어가 내 안의 나를 만나, 깨어나는 삶,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영혼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책 속에 들어 있는 작품들을 켠켠히 감상해 보면 작가가 얼마나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했는지 단박에 알 수 있다. 결 닥종이 제작, 하트 페이퍼 드로잉, 천연염색, 바느질, 지승, 수공예, 옻칠염색, 입체라인 실험 등등. 특히 쪽 염색은 자연과 교감하며 유기농법으로 키워낸 쪽 풀로 염료를 만들어 결 닥종이에 염색을 정착시켰다. 모두가 손이 몇배로 가는 친환경적인 작업 방식으로 물성(物性) 체험을 부지런히 쌓아나간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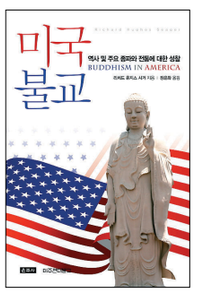
이 책에 실린 작품 하나 하나를 완성하는데는 짧게 4~5년, 길게는 20년 정도가 걸렸다고 작가는 고백한다. 그래서 작품 한 점 한 점이 저자 영혼의 메시지가 됐다고 덧붙인다.

즉 글 하나 하나 마다 모두 내면을 조율 한 후 영감과 명상으로 완성시켰다니, 이 책을 접하는 독자의 영혼이 치유되고 진화되는 힐링 에너지를 만나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책 속에 소개된 제목처럼 매일의 반복된 일상서 녹을 걷어내고 싶다면 천천히 책장을 넘기면서 작품들과 곳곳에 조각된 시의 편린들을 통찰해 보자. 책 속에 면면히 흐르는 치유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현재 미국 불교는?… 탈전통, 탈종교, 사회참여, 일상생활의 수행으로 정착



미국불교

리처드 휴지스 시거 지음
장은화 옮김
운주사 펴냄
3만원

다종교 · 다문화 사회인 미국서 활기차게 발전하는 미국 불교의 역사와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미국 불교에 대한 종합적 안내서이다. 특히 다양한 종교 전통, 즉 각국의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불교 종파들의 정착 및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불교는 아시아서 발생했고, 당연히 아시아 사람들이 신봉하는 종교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현대자본주의의 첨병을 달리는 미국서 불교가 기독교, 유대교와 함께 미국 최대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 급성장 한다는 점이다. 또한 유럽국가에서도 불교 신자들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토인비는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아달라는 요청에 "동양의 불교가 서양에 유입된 일"을 들었다. 특히 미국은 19세기 말 처음으로 불교가 소개된 이후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며 발전해오고 있다. 이는 근래 뉴욕 타임스의 베스트셀러 10위권 목록에 불교 관련 서적이 빠진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로 반증된다. 이 책은 미국의 종교를 전공한 저자가 그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미국 불교의 개략적인 역사와 미국 내서 성장한 주요 불교종파들과 그들의 전통, 그리고 미국 불교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전체 3부로 구성된 이 책의 제 1부 '종교사적 배경'에서는 아시아와 미국의 종교사와 관련된 배경을 다루었다. 먼저 미국 불교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이어서 전체 불교사에서 핵심적인 사상과 역사적 발전을 간략히 서술했다. 그리고 미국에 불교가 전래된 초기에 일어난 주요 발전상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면서, 과거 미국의 종교사에서 이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고찰했다.

이어 제 2부인 '주요 불교 전통'은 이 책의 핵심이며, 여섯 가지 유형의 불교를 선정한 후 각 유형이 미국에 소개될 때 작용한 독특한 세력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근대 일본 불교사와 관련된 배경들을 다양하게 소개하는데, 그중 정토진종과 선종, 그리고 창가학회가 이민자들의 역동성을 통해서 미국 종교 체계의 일부가 된 과정을 자세히 기술했다.

미국 불교의 역사와 특징 체계적 정리
이민자 중심으로 한 불교 정착과정 고찰

또한 아시아의 다른 여러 전통서 나타난 발전상을 선별해서 고찰하고, 미국 내의 티베트 불교의 도입과 특징, 미국 대중문화와의 연계성을 고찰했다.

마지막 제 3부 '선별된 쟁점들'에서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일어난 세 가지의 중요한 발전상을 고찰함으로써 불교의 미국화를 보다 더 상세하게 다룬다. 먼저 양성평등의 이상이 진보적 유대교 및 기독교의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국 불교에서도 표출된 경위를 기술했다. 다음으로는 몇몇 유명인과 유명단체가 사회변화에 헌신하는 진보적 미국 불교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고찰했다. 그리고 미국 불교 공동체 내에서 현재 진행되는 불교 내적 대화와 종교 간 대화를 기술했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 말의 미국 불교 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21세기를 맞이하는 몇 가지 제안을 했다.

미국 불교를 종합적으로 다룬 고전적인 이 책의 한국어 번역판 출간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을까?

첫째, 이 책은 미국 불교에 관한 학술자료로서 큰 가치가 있다. 미국 불교의 역사, 주요 전통, 주요 의제를 미국 종교사의 관점서 서술한 이 책은 한국어로 된 미국 불교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한국 불교학계와 독자들에게 이전에 접하지 못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준다. 둘째, 이 책은 미국의 이민민족 불교에 대한 창의적 관점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미국 불교의 구성요소를 '유럽계 미국인 위주의 개종자 공동체', '60년대에 도미한 아시아 이민 공동체', '19세기 중엽의 중국계 및 일본계 이민 4~5세대 후예들'이라는 세 집단으로 구분한 후, 이 중 이민민족 불교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한다.

셋째, 이 책서 기술한 미국 불교의 현황은 한국 불교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에서 불교학의 흐름은 철학적, 형이상학적 교학에 경도된 경향이 있으며, 우리의 삶에 불교의 통찰을 적용하고자 하는 응용불교, 실용불교의 연구는 많이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불교 전통이 한자리에 모인 미국사회에서 불교는 탈전통, 탈종교, 사회참여, 일상생활의 수행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한국 불교가 열린 마음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지만 그에 부응하지 못하여 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볼 때, 한국 불교는 미국 불교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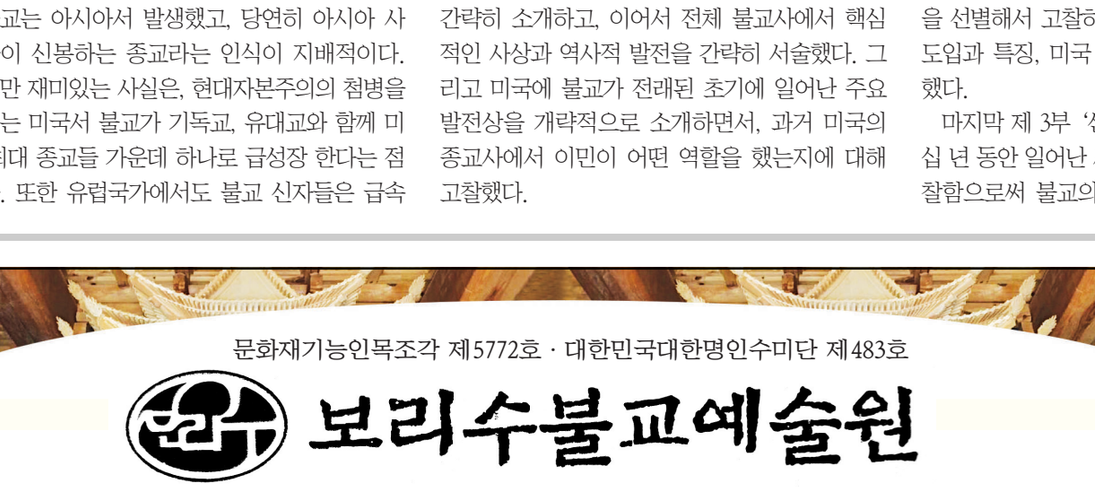
문화재기능인목조각 제5772호 · 대한민국대한명인수미단 제483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네이버는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 검색 ⇨ 카페 앨범 검색 ⇨ 목록 검색하시고,
다음에서는 다음카페 검색하시면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단청,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